

통합특별시 출범 '선물' 반도체공장 전격 발표 촉각

삼성·SK하이닉스 전남광주行 기대 ↑
李대통령·閔당선자 등 잇따라 '군불'
해남·장성 후보자...패키징공장 유력
에너지·기업 필요·정부 정책 '3박자'
정부·기업, 이달 말 지방 투자 논의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투자 확대와 균형 발전 의지를 재확인한 데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특히 해남과 장성 첨단3지구 일대가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투자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AI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인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호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해남 솔라시도와 장성 첨단3



반도체 공장 기다리는 첨단3지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반도체 공장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광주 북부와 장성군 남면 일대 첨단3지구 전경. /조영권 기자

지구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삼성전자가 국가AI컴퓨팅센터가 추진되는 해남 지역을,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가 조성되는 장성권을

중심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투자 형태로 초미세공정 웨이퍼 생산시설인 대규모 팹(Fab)보다는 첨단 반도체 패

키징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식 발표나 사실 관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남

광주 반도체공장 설립은 이달 말께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달 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과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식에서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 설립 구상을 전격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통합특별시 출범 '선물'로 반도체 공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는 지난 8일 전남광주추진기획위원회 출범식 때 질의응답을 통해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 관련 정부·기업의 발표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한 바 있다.

과거 대기업 투자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전남광주가 반도체 최적지로 떠오른 것은 전남도의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준비, 값싼 전력·용수 등을 바라는 기업들의 필요조건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 우대 정책이 맞물린 결과물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정치권도 전남광주 반도체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기업에 이런 부탁을 한다. 기업적이면 지방에 해달라"면서 "재정 정책, 산업경제 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김재정·변은진 기자

원정 8강 새 역사 도전...다시 울려 퍼질 "대~한민국"

제23회 FIFA 월드컵 팡파르



'지구촌 최대의 축구 잔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12일 오전 4시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20일까지 39일간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에서 공동 개최된다. ▶관련기사 16면
제23회 FIFA 월드컵인 북중미 대회는 본선

한국, 내일 체코와 '운명의 첫 경기'
미국·멕시코·캐나다 북중미 공동 개최

진출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월드컵이다.
참가국 확대에 따라 총경기 수가 104경기로 크게 증가해 대회 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4개국씩 12개 조(A-L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를 차지한 24개 팀에 더해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추가로 합류해 '32강 토

너먼트'를 벌인다. 기존 16강전부터 시작되던 '단판 승부'가 한 단계 더 늘어난 셈이다.
11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는 한국 대표팀은 원정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인 8강 진출에 도전한다.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썼으나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은 2010년 남아공 대회와 2022년 카타르 대회의 16강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유럽의 북병 체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른다. 이어 1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격돌

하며, 25일 오전 10시에는 몬테레이로 이동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벌인다.

'좋은 위치에서 32강 진출'을 목표로 내세운 홍명보호는 '캡틴' 손흥민을 선봉으로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좌우 측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이 끝난 뒤 7월 MLS 울스타전에 나설 '퍼스트 11'에 당당히 뽑힌 손흥민은 4번째 월드컵 무대에 오르며, 한 골만 넣으면 통산 4골로 안정환·박지성(이상 3골)을 넘어 역대 한국 선수 월드컵 최다 골 신기록을 세운다.

지난 8일 결전지에 입성한 한국축구 대표팀은 고지대 적응 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해발 1570m의 고지대인 과달라하라의 기압이 낮아 공이 빠르게 날아가고 체력 소모가 크다. 특히

세트피트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완전 비공개 훈련으로 체코전을 준비했다. 키 100m 이상 선수 가 무려 10명이나 되는 체코의 '고공 공격'에 맞설 공격 전술, 스타백 수비 전술과 세트피스 훈련 등 맞춤형 전술에 집중, 첫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박희중 기자

Today	
'쓰레기산' 챔프, 대화용기 사용 늘려야	7면
남도인물열전-고산 윤선도	14면
다시 뜨거운 김도영...40출런 가나?	16면
※'6·3地選' 대체휴무 12일자 신문입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금융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광주문화신협

광주매일신문 창사 35년 1992년 생생 어부바 신협

자산 규모 1조 6천 5백억원
창립 이후 33년 연속 흑자경영
당기순이익 10% 이상 지역사회 환원

자산
1조 6,562억

26. 03. 기준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 운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의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합니다.

고교2학년 ~ 대학졸업까지
6년간 장학금 지원!

15년간 총 누적 장학생 235명
총 누적 지급액 2,430백만원

26. 03. 기준

광주문화신협 소상공인 지원
어부바플랜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결연업체 혜택

- ☑️ 업장 환경 개선
- ☑️ 필요물품 지원
- ☑️ 금융상담 및 대출

2022년~현재 결연업체 673곳

광주문화신협 & 광주북구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

광주광역시 시청과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완료

보통계좌 카드

광주문화신협은 2월 2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 상행실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보조사업자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보조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본점 | 여신사업부 | 문흥지점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림지점 | 동광주지점 | 각화지점

대표 번호 **1644-7990**